

## 물류산업 및 국가물류발전 기여 대정부 연계활동 통해 회원사 권익 보호



김진일

한국통합물류협회 회장

한국통합물류협회는 7월 30일 여의도에 위치한 협회 회의실에서 포장 및 물류 산업계 기자들을 초청, 간담회를 열고, 향후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6월 25일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 분산되고 영세한 물류산업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결집하여 정부와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구심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회원사의 물류선진화 및 권익신장에 기여하고자 설립됐다.

물류관련 단체의 통합으로 물류산업이 국가경제 발전의 주요한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며, 미래의 국가성장 동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물류관련 기업들이 기대하고 있는 현재, 김진일 회장에게 향후 운영 계획을 들어보았다. - 편집자 주 -

“최근 물류업계의 최대 관심사였던 한국통합물류협회의 출범 이후, 회원사는 물론, 세간의 관심이 저희 협회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통합물류협회 초대 회장이라는 막중한 임무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회원사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김진일 회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특수법인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토해양부로부터 통합 협회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

## 10월 말 비전선포식 통해

### 구체적 활동 계획 발표

을 약속받고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한국통합물류협회는 기존의 한국물류협회, 한국물류창고업협회, 인증종합물류기업협의회, 컨테이너운송CY사업자협의회, 택배사업자협의회 등 총 5개 협회 및 협의회가 올해 4월 22일 통합물류협회 설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추진 위원회의를 거쳐 창립되었다.

한국통합물류협회의 출범 이후 업계의 주목을 받는 만큼, 김진일 회장은 선진국 수준의 물류산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먼저, 한국통합물류협회는 물류관련 업계의 대변인이 되어 대정부와의 유기적인 연계활동을 통해 회원사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국내 물류관련 각 전문분야협의체를 지속적으로 한국통합물류협회로 결속시켜, 공동된 의견을 수렴, 물류발전에 시너지효과가 발휘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물류연구원을 확대 개편시켜 다양한 연구조사 및 정책개발, 기업물류컨설팅을 지원함은 물론 산·학·연 교류의 원활화는 물론 선진물류관리 기법 및 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업계에 보급 확산시킬 계획도 갖고 있다.

“종합물류, 국제물류, 기업물류(화주), 녹색물류, 택배, 물류시설, 컨테이너운송, 물류기기, 물

류컨설팅, 물류정보기술 및 물류관리사 등 전문분야별 위원회를 설치하여 실질적이고 업계에 도움이 되는 사업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정부와의 가교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국토해양부 특수법인으로 출범한 만큼 협회 사무국은 국토해양부 ‘실장급’으로 내정되어 있는 상근부회장을 중심으로 회원지원본부, 교육사업본부, 인증사업본부 등 본부장 중심제로 운영하여 회원사지원, 물류인적자원개발 지원, 녹색물류인증 등 물류관련 정부위임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오는 10월 말, 한국통합물류협회는 비전 선포식을 계획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협회는 2020년 비전으로 10,000여개의 회원사 규모와 사업목표 1,000억원을 달성하는 글로벌물류혁신을 선도하는 대표단체로 거듭날 포부를 갖고 대한민국 물류 이정표를 만드는 작업을 펼칠 계획이다.

한국통합물류협회의 창립으로 미국, 네덜란드, 일본, 싱가포르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국 수준의 물류산업 경쟁력을 갖추어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한걸음 도약시켜 나가겠다는 김진일 회장.

물류산업 및 국가물류발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노력하겠다는 그의 행보에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

박초혜 기자